



# 기독일보



2024년 5월 2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5호

## 친동성애 노골화 하는 UMC? '전통적 규정' 일부 삭제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UM News

### 2019년의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규정 등 삭제 청원안 통과 '동성애 행위,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규정도 바뀔까?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성소수자 관련 '전통적 규정'의 일부를 삭제했다. 교단이 친동성애적이라고 판단한 약 7,600개 교회들이 탈퇴한 뒤 UMC의 이런 경향이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30일(현지 시간) 연합감리교뉴스(UM News)에 따르면 UMC는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한 규정 등의 삭제를 청원한 안을, 토론 없이 대의원 667명의 압도적

찬성과 54명의 반대로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통과된 내용은 △연회와 교단 기관이 UMC 기금을 '동성애자 그룹'에 제공하거나 '동성애자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성직안수위원회는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은 동성애자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다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을 주례로 위촉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감독은 해당 연회에서 임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우수한 기준을 갖춘 동성애자에게 연회의 경계를 넘어 파송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단의 '자칭' 동성애 실천 성직자 및 동성 결혼식 금지와 관련한 사법 절차를 유예한다. 이 유예 조치는 총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 지속된다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규정 중 일부는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438대 384의 표차로 통과된 것들이다. 성(性)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지지한 찬성표가 조금 더 많았다. 그랬던 것이 5년이 지난 뒤 667대 54로 완전히 판이 뒤바뀐 것이다.

보수 성향인 7,600개 교회들이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합감리교뉴스는 "UMC 미국 내 교회의 4분의 1이 교단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교단의 정책적인 장정의 내용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총회 대의원들은 이번 주 후반에, 교단의 오랜 금지 조항과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52년 된 규정 및 그와 연관된 다른 청원안들을 투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장정의 표현을 바꾸기 원하던 이들은 장정의 동성애 관련 부분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창립 30년' 지구촌교회 부흥의 이유 중 하나는 '이것'

### 5월 20~22일 중보기도 컨퍼런스 개최 최성은 목사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한 중보기도" 훈련된 중보기도팀, 다양한 자리에서 깊이 기도 2019년부터 '3천 중보 용사' 기도 사역 선포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 창립 30주년 기념 '2024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지구촌교회 분당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지구촌교회는 매년 '지역교회 중심 세상 중보'의 길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왔다. 올해 지구촌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경적 중보기도의 사명과 중요성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특히 교회 측은 "연속적이며 체계적인

중보기도 사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길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원 원로목사는 행사에 대해 "지구촌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한 중보기도의 축복을 나누며 한국교회와 다시 한 번 이 땅에서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담임목사는 "지난 팬데믹 상황이 교회의 많은 사역을 어렵게 했지만,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걸고 멈출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기도임을 확인시켰다"며 "지구촌교회가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적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지구촌교회는 이미 훈련된 중보기도 사역팀이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 특공대'와 같이 깊이 있게 기도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더 많은 성도가 기도에 힘쓰도록 2019년부터 '3천 중보 용사' 기도 사역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으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 특별 강사로 나서는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지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되는 컨퍼런스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는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놀라운 안목을 열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지구촌교회 분당캠퍼스에서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선다.

다양한 강의와 기도 실습과 함께 실제 중보기도 사역 현장인 중보기도실을 탐방하며, '중보기도 사역 Q&A'를 통해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은 중보기도 컨퍼런스 홈페이지(www.jiguchon.or.kr/prayer)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등록자에게는 중보기도 컨퍼런스 교재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책자인 '중보기도 사역론의 실제',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 파일을 제공한다.

교회 측은 "또한 중보기도 사역이 개교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 컨설팅과 코칭으로 도움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CCA, 아시아주일 앞두고 미얀마 위한 연대 요청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가 오는 12일을 앞두고 미얀마를 위해 회원교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올해 아시아주일의 주제는 '미얀마: 희망의 하나님, 우리를 기쁨과 평화로 채우소서(Myanmar: God of Hope, Fill Us with Joy and Peace)'로 결정됐다. CCA는 회원 교회, 협의회,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에게 관련 예배 순서지를 배포해 함께 아시아 주일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CCA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민들은 군사 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 고문,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수민족이 반인도적 범죄의 큰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CCA 총무 매튜 조지 추나카라 박사는 "우리는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이 종식되고, 미얀마의 평화와 정의의 위해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얀마 시민들이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DW 다큐멘터리 영상 캡처

"미얀마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CCA는 매년 아시아주일을 지난 9년간 지켜왔으며, 이번 주제를 통해 아시아 교회들이 미얀마에 대한 연대와 도움을 나누는 책임을 다짐했다. 노형구 기자

## 아름다운피켓, 어린이날 태아생명축제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운화)과 주사랑 공동체(메이비박스)가 어린이 날 맞아 오는 4일 신촌 현대백화점 유폴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어린이날 태아생명축제 '태아도 어린이예요: 장애가 있어도 소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신촌감리교회(담임 임재용

목사), 부천 성수교회(담임 김승리 목사), 운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및 여러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한편 태아생명존중 단체 아름다운피켓은 2011년부터 태아생명존중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관련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노형구 기자

서울씨티교회, 어린이 날 '매직콘서트' 성황 >> 7면

장신대 김성중 교수 "삶의 목적대로" >> 22면

## 30 ANNIVERSARY YEARS

###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 2024 중보기도 컨퍼런스

5/20월 - 22수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원로)

###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

일정 5/20(월)-22(수)  
장소 지구촌교회 분당캠퍼스 분당  
등록 중보기도 컨퍼런스 홈페이지 www.jiguchon.or.kr/prayer  
문의 중보기도 컨퍼런스 진행본부 031-710-9414 prayer\_c@jiguchon.org

종보기도 컨퍼런스 등록바로그	개인		선교사/신학생
	1차	2차	3차
	4/1(월)-22(월)	4/23(화)-5/6(월)	5/7(화)-15(수)
	8만원	9만원	10만원
			3만원

• 점심식사 제공 (속박, 저녁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체할인 없음

시간	5/20(월)	5/21(화)	5/22(수)
오전	강의 1 중보기도 사역 이동원 목사	강의 6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최성은 목사	강의 11 기도 경험과 여러교 직전 유대원 목사
	강의 2 기도의 기쁨 유기성 목사	강의 7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다 이규현 목사	강의 12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중보기도(오 17강) 이동원 목사
	강의 3 중보기도의 특성과 의무 서경철 목사	강의 8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최철준 목사	
오후	강의 4 중보기도의 슬리의 모본 박길호 목사	강의 9 영적 전쟁의 슬리를 위한 기도 조대호 목사	5/20(월) 오전 9시 부터 등록 확인 및 교재 배부가 진행되며 오전 9시 50분 부터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저녁	강의 5 병든 자를 위한 기도-민족치유 이동원 목사	강의 10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세상변화 최성은 목사	

**중보기도 컨퍼런스 에 오시면**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적용 가능한 '성경적 중보기도'의 이론과 실재를 배웁니다. 지구촌교회의 실제 중보기도 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일부). 중보기도 행정자료 제공 및 후속적인 중보기도 사역 컨설팅과 코칭을 해드립니다.